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0~12/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어상: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3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부처님의마지막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원각경.현담	규봉 종밀 현담/신규탁 역	운당문고
5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10	속담속에담은불교명쾌하고쉬운불교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불교미술로 돌아본 부처님 8대 성지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
강소연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30년간 문화재 연구한 전문가
경전 · 미술로 붓다 가르침 정리
기존과 다른 독특한 성지 안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붓다의 성도지 마하보디 사원과 마하보디 대탑. 현대불교 자료사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인(聖人)의 발자취를 좇는 일은 그를 따르는 후학에게 당연한 일이다. 정신·사상적인 면을 넘어 성인이 살았던 생가와 고향을 찾는 건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발로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붓다의 제자들은 붓다의 삶 80년이 오롯이 담긴 인도로 떠난다. 탄생지부터 성도지를 거쳐 열반지까지 수많은 성지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불자들로 늘 붐빈다. 한국의 불자들도 겨울이 되면 인도순례를 하며 다시 한 번 발심하는 시간을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붓다의 성지를 순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순례를 계획하겠지만 여러 성지를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일은 드물 수밖에 없다. 여행사를 통한 일반적인 대중순례로는 언감생심이고,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 탐구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붓다의 생애 무대기도 한 성지를 돌며 조각상과 대탑, 문양, 그림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미술에서 가르침을 찾았으니.

이 책을 쓴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는 30여 년간 문화재를 연구해온 학자다. 불교미술 분야에서는 탁월한 식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15년간 해온 수행자다. 그런 그가 붓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책으로 펴냈다. '고(苦)'라는 실존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었던 붓다의 발자취를 좇으면서 도성제로 완성한 붓다의 존재 해탈법을 수많은 불교미술에서 찾은 것이다.

붓다가 탄생하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득도하고 설법하고 교화한 곳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적과 유물로 장엄되고, 현재는 세계인의 성지가 됐다. 여기에 맞춰 책은 총 8대 성지(룸비니·보드가야·사르나트·슈라바스티·산카샤·라지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로 구성했다. 각 성지에서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붓다가 하신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인지 해당 장소의 기념비적인 유물과 함께 생생하게 소개했다.

책에는 다양한 가르침과 성지에 있는 여러 불교미술이 소개되지만 이를 관통하는 것은 붓다가 설한 진리다. 저자는 "진리의 세계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 불교경전이고, 미술로 시각화한 것이 불교미술"이라고 규정한다. 둘은 그저 방편의 차이일 뿐 모두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두 방편을 모두 활용해 '직설'과 '미술'을 제목으로 삼았다.

책의 여정은 붓다의 탄생지 룸비니에서 시작한다. 마야부인이 무수 꽃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무심코 이를 꺾으려고 팔을 들자, 그 옆구리에서 태자가 태어났다는 탄생이야기. 붓다의 탄생을 표현한 부조와 경전을 인용해 수메다를 조명한다. 성도지 보드가야 편에선 6년간의 고행 끝에 "고행으로는 반야를 얻을 수 없다"고 설한 붓다의 말씀과 더불어 불교미술 속 수자타의 공양을 톺아본다. 최고의 성지 마하보디 사원은 성도지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붓다의 정각을 표현한 대각상을 석굴암 본존과 비교한다.

책에는 각 성지에 있는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라호르·페샤와르 박물관,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프랑스 기메 박물관 등 해외 유명 박물관 소장품도 등장한다.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우미다. 이렇게 수많은 불교미술과 경전을 방편으로 저자는 붓다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이미 붓다 성지순례를 주제로 한 책은 다양하게 발간됐지만 이와는 다른 결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책은 조금 더 독특한 성지 안내서다. '존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미술로 나타난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한걸음씩 옮겨보자. 성지의 유물과 쉽게 접하기 힘든 미술작품들이 보다 생생한 붓다의 삶을 전해줄 것이다.

▲저자 **강소연**은?

문화재를 전공한 30년 내공의 학자. 삶을 살다가 '존재의 고(苦)'에 부딪혔다. 이에 불교 수행(사마타 · 위빠사나)을 15년간 한 결과, 수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깨달음의 세계가 불교경전과 불교미술로 표현됐다는 것을 체득했다. 불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론과 미술을 겸비한 명쾌한 해설로 강단에 서고 있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이며, 저서로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 〈사찰불과 명작강의〉 〈명화에서 길을 찾다〉 등이 있다.

한국 설화 재해석해 풀어낸 어른 그림책



까만 별
김상규 글 · 그림
스튜디오 무상 / 1만7000원

우리나라 옛이야기 가운데 〈복 타러 간 총각〉이라는 것이 있다. 가난하고 외로운 총각이 박복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복을 찾으러 하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 길에서 처녀, 배나무, 이무기 등 걱정을 안고 사는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총각은 복을 얻기 위해 하늘을 원망만 했지만 복은 삶의 여행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설화는 표면적으로는 어느 기구한 총각이 배우자와 재물을 얻게 되는 이야기지만 달리 보면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때로는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리곤 한다. 〈복 타러 간 총각〉에서 그 오래된 지혜를 느낀 김상규 작가는 〈까만 별〉에 그 지혜를 듬뿍 담았다. 실질적인 재물과 복을 얻는다는 결말 대신 더 귀중한 가치를 배우고 오는 여정을 풀어낸 것. 뿔을 버린 사슴과 고치실을 벗어난 긴꼬리산누에나방은 여의주를 버린 이무기의 또 다른 모습이다. 책을 읽는 여우는 〈원천강본풀이〉에 나오는 책 읽는 도령과 낭자의 모습을 담았다.

고요한 수묵화로 그려낸 시적인 풍경과 여정도 눈길을 끈다. 〈까만 별〉의 원화는 한지와 먹으로 그리고, 디지털 채색을 입혔다. 종이 위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먹물은 강물의 고유한 습기를 나타내 줬고, 디지털 채색으로 새로운 느낌의 수묵화가 완성됐다. 동양적이고 시작인 풍경의 그림들과 함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는 작가의 뜻이 온전히 담겼다.

글과 그림에 담긴 동양적 사유를 나타내기 위해 책 제본과 형태에도 특별함을 줬다. 책등을 표지로 덮지 않고 드러낸 '사철 노출 제본'으로 제책, 실로 단단히 엮인 색색의 종이들이 그대로 보이는 책등이 동양적인 감성에 꽤 잘 어울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저자 **김상규**는?

서울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한국의 여우 구슬 설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 〈달이의 영혼 구슬〉, 십장생도를 소재로 한 그림책 〈오래오래〉, 고려불화의 도상을 연구한 책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불화〉 등 몇 편의 책을 쓰고 그렸다.



